

杜甫의 書藝觀과 後代의 評價*

禹 在 鎬**

<目 次>

I. 서론	3. 당대 서예의 기준 제시
II. 두보의 서예관	III. 두보 서론과 서예에 대한 후대의 평가
1. 전대 서예가와 서체를 논함	
2. 당대 서예가와 서체를 논함	IV. 결론

I. 서론

시로 서예 관련 내용을 읊은 書藝詩¹⁾는 唐代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서예시가 본격적으로 지어졌던 唐代의 시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1) 書藝詩란 서예에 관해 읊은 시로, 서예 작품에 관한 시, 서예 작품을 품평한 시, 서예사를 읊은 시, 작가 자신이 글씨를 쓰면서 느끼는 감흥을 읊은 시,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 도구를 읊은 시, 기타 글씨와 서예가에 대한 일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書藝, 중국에서는 書法, 일본에서는 書道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본고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서법’이란 용어보다 ‘서예’라는 용어를, 시로 서예를 논한 이러한 시들을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論書詩’라 칭하지만, ‘논서시’라는 용어보다 ‘서예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에서 서예라는 용어의 기원과 연혁에 대해서는 金光郁의 <三國과 高麗의 論書詩 考察>(大邱書學會, 《書學論集》 第6輯, 中文出版社, 2001) 42-44쪽 참조. 김광옥도 처음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는 ‘논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韓國 書藝詩 研究》(계명대학교출판부, 2006.10)에서부터는 ‘서예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에서도, 서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杜甫(712~770)의 시에 초점을 맞추어 두보의 서예와 서예관, 그리고 두보의 서예와 서론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당대의 많은 시인들 중에서 특별히 두보의 서예와 서예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비록 현전하는 두보의 친필 서예가 없어서 두보의 서예 수준이 어떠한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두보 스스로 “아홉 살에는 큰 글자를 연습하였는데, 필사한 글씨가 한 자루나 되었다네.(九齡書大字, 有作成一囊.)”라고 한 것²⁾을 보면 어릴 때부터 글씨 쓰기를 좋아하여 9세 때 이미 큰 글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고, 아울러 어릴 때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둘째, 서예사라 할 만한 시가가 없었던 魏晉代는 차치하고, 당대에도 두보 이전에 서예시를 창작한 시인은 손꼽을 정도였으나, 두보의 시에서는 시 전체가 서예 관련 내용으

2) 이 구절은 두보 시 〈壯遊〉(卷222-19)에 나온다. 두보 시를 포함하여 본고에서 인용한 唐詩 원문은 《全唐詩》(上·下 二冊,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再版)를 저본으로 하였고, 仇兆鰲의 《杜詩詳註》(全3冊, 漢京文化事業公司, 臺灣, 1984)를 참고하였다. 시의 뒤(卷222-19) 안 숫자는 《全唐詩》의 권수와 시가 출현 순서의 일련번호이다. 본고에 인용된 두보 시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韓成武·張志民的 《杜甫詩全譯》(河北人民出版社, 1997.10)과 《두보 초기시 역해》(이영주 등, 솔, 1999.1), 《두보 지덕연간시역해》(이영주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12), 《두보 위관시기시역해》(이영주 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8), 《완역 두보 율시》(이영주 등, 명문당, 2006.6), 《두보 진주동곡시기시역해》(이영주 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10), 《두보 성도시기시역해》(이영주 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12), 《두보 제주낭주시기시역해》(이영주 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7) 등의 한국어 번역을 참고하였고, 필요할 경우 필자가 조금 수정하였다.

3) 吳文治, 《宋詩話全編》(全10冊,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998) 1冊, 617-618쪽. 《苕溪漁隱叢話》前集 卷18《蔡寬夫詩話》“杜子美云……子家有其父閑所書豆腐府君德政碑, 簡遠精勁, 多出於薛稷魏華, 此蓋自其家法言之.”에서의 언급처럼 두보의 부친 杜閑의 서예 수준이 정심하였고, 陶宗儀, 《書史會要》(徐娟主編, 中國歷代書畫藝術論著叢編1, 全60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1997, 164쪽) 卷5 “杜審言……工書翰, 嘗語人曰, 吾必當得王羲之北面, 其矜誕類此.”에서 조부 杜審言 역시 서예에 빼어나 스스로 왕희지에 비견하며 자부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 조부와 부친의 서예 수준과 자부심 등이 두보의 서예 학습과 조예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로 이루어져 서예시라 분류할 수 있는 시도 4수나 되며,⁴⁾ 서예에 대한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담고 있는 시는 거의 백여 수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⁵⁾ 셋째, 두보 서예와 서론을 평하고 있는 역대 평자들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두보 자신의 서예 수준과 다른 서예가들의 서예 작품을 품평한 안목 역시 상당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이유 중에서도 특히 唐代의 다른 시인들과 달리 두보가 서예 관련 내용을 시에서 특히 많이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서예 관련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담고 있는 두보 시를 통해, 본고에서는 먼저 두보가 중국 역대 서예와 서예가들에 대해 지녔던 서예관, 당대의 서예와 서예가에 대해 지녔던 관점, 두보가 제시한 당대 서예의 기준 등을 차례로 알아보고, 아울러 두보 서예와 서론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두보의 서예관

당대에 들어 처음으로 서예를 주제로 한 시를 창작한 시인으로는 岑文本(595~645)을 들 수 있다. 당 태종 때 재상을 지녔던 岑文本의 시는 《全唐詩》에 모두 4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수가 〈비백서의 서세를 받들어 서술하다(奉述飛白書勢)〉(卷33-7)이다.⁶⁾ 飛白書의 書勢를 읊은 이

4) 이에 대해서는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12), 147-149쪽 참고.

5) 張學鵬, 《杜甫論書詩研究》(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5), 3쪽.

6) 이 시는 다음과 같다. “여섯 종류 문자에서 전서가 만들어지고, 여덟 종류 서체에서 은서가 밝게 빛나네. 나는 듯한 붓에선 금빛 자수 글씨 펼쳐지고, 흰 종이 펼치니 용과 잉어 일어나는 듯하네. 봉황이 날고 구름이 피어오르듯 기세가 끊어지고, 난새가 놀라고 안개가 흐르듯 기운이 소탕하네. 달리 서예 학습하는 못가의 풀이 있으니, 황은이 윤택하여 드리운 이슬처럼 여유롭네.(六文開玉篆, 八體曜銀書. 飛毫列錦繡, 拂素起龍魚. 鳳舉崩雲絕, 鸞驚游霧疏. 別有

시는 중국 최초의 서예시라 할 수 있다.

岑文本 외에 李嶠(644~713)의 <글씨(書)>(卷59-33), 張說(667~731)의 <우림군에서 은혜롭게 불러 어서인 왕태위비를 보다(羽林恩召觀御書王太尉碑)>(卷87-20), 王維(701~761)의 <친구 장인은 시에 뛰어나고 역점을 잘 쳤으며 아울러 단청과 초서, 예서에 능하였는데, 근래에 시를 지어 보내주어 애오라지 이에 화답하다(故人張諶工詩善易卜兼能丹青草隸頃以詩見贈聊獲酬之)>(卷125-96), 李頎(690~753)의 <장옥에게 드림(贈張旭)>(卷132-9), 李白(701~762)의 <초서 노래(草書歌行)>(卷167-21), <종숙인 당도현령 이양빙에게 올림(獻從叔當塗宰陽冰)>(卷171-21), <태자빈객 하지장이 월로 돌아감을 전송함(送賀賓客歸越)>(卷176-12), <왕회지(王右軍)>(卷181-22) 4수, 高適(707~765)의 <취한 후에 장옥에게 드림(醉後贈張九旭)>(卷214-3) 등을 두보 이전 또는 동시대에 창작된 서예시로 들 수 있다. 이밖에 생졸년 미상이지만 두보보다 앞서거나 동시기로 여겨지는 시인들의 서예시로는 王維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9) 등 다섯 시인의 다섯 수 정도를 들 수 있다.⁷⁾

두보 이전에 서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은 거의 대다수가 단편적

臨池草，恩添垂露餘。” 飛白이란 草篆이라고도 칭하는 일종의 서체를 말한다. 東漢 靈帝 때 鴻都門을 장식하던 장인들이 白粉을 바르는 빗자루로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蔡邕가 이 飛白 서체를 장안하였다고 하는데, 글씨의 점획이 새까맣게 쓰이지 않고 마치 비로 쓴 것처럼 붓끝이 잘게 갈라져 쓰였기 때문에 필세가 飛動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마지막 구절의 垂露 역시 서체의 이름이다. 한나라 曹喜는 전서와 예서를 잘 썼고 懸針과 垂露의 法에 뛰어났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垂露書’라 칭하였다. 세로획을 쓰는 형태 중의 하나로, 붓을 거두어들이는 곳의 모양이 마치 풀잎에 이슬이 드리워졌으나 떨어지지 않는 모양과 같다 하여 이렇게 이름 하였다고 한다.

- 7) 기타 네 수는 竇冀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10), 魯收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11), 朱遼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12), 許瑤의 <회소 상인의 초서에 제함(題懷素上人草書)>(卷204-13) 등인데, 회소의 초서를 읊은 시는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 당대 서예시에 대해서는 蔡顯良의 《唐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와 禹在鎬의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12) 등의 선행연구 참조.

부분적으로 서예 관련 내용을 다루었거나, 한 시인이 한 수 정도 지은 경우가 많고, 다수를 창작한 경우는 李白을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두보 시에서는 서예 관련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백여 수에 이를 정도로 많아, 이 시들을 통해 두보가 역대 서예가와 서예에 대해 지닌 서예관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1. 전대 서예가와 서체를 논함

먼저 두보는 <이조의 팔분소전 글씨 노래(李潮八分小篆歌)>에서 역대 주요 서체와 서예가를 개괄하였다.

蒼頡鳥迹既茫昧, 字體變化如浮雲. 陳倉石鼓又已訛, 大小二篆生八分. 秦有李斯漢蔡邕, 中間作者寂不聞. 嶧山之碑野火焚, 棗木傳刻肥失真. 苦縣光和尙骨立, 書貴瘦硬方通神.	창힐의 새 발자국 이미 아득하고, 글자체는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네. 진창의 석고문 또한 이미 와전되어, 대전과 소전에다 또 팔분서 생겨났네. 진나라에는 이사가 한나라에는 채옹이 있는데, 중간에 일어난 이들은 적막하여 듣지 못했다네. 역산의 비문이 들불에 타버려, 대추나무에 옮겨 새긴 것 살쥔 본래 모습 잃었네. 고현의 노자비와 광화 연간의 변의비도 빼대 선 것 숭상했으니, 서체는 여위고 굳셈 귀히 여겨 바야흐로 신묘함과 통하였네.
---	--

위의 인용문은 이 시의 전반부로 陳倉의 石鼓文, 史籀의 大篆(籀書)과 李斯의 小篆을 포함한 篆書, 八分(隸書) 등을 열거하며 서체의 발전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사적으로 개괄하였다.⁸⁾ 嶧山의 비문은 진시황 28년(기

8) 陳倉 石鼓란 돌을 다듬어 북 모양을 만들고 둘레에 문자를 새긴 陳倉에서 출

원전 219년)에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하며 역산에 오르니 丞相 李斯 등이 그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돌에 새겼다는 嶧山刻石으로, 글씨는 이사가 쓴 것이라 전해진다. 苦縣은 老子的 출신지로 여기서는 고현의 老子碑를 가리키며, 光和는 蔡邕이 쓴 것이라 전해지는 熒毅碑를 가리키는데 비석이 漢 靈帝 光和 연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光화라 칭하였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두보는 소전에 능했던 이조의 서체를 추켜세워 이조가 이사와 채옹을 스승으로 삼아 이들의 서예에 가깝다고 하였다. 이조 서예의 빼어남을 강조하며 이사와 채옹의 필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두보는 전대 서예가 중에서 이사의 소전과 채옹의 팔분서를 최상의 경지에 이른 일품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보의 채옹 팔분서에 대한 인식은 <고팔분 문학이 홍주와 길주로 가는 것을 전송하며(送顧八分文學適洪吉州)>(卷223-17)에서 “중랑장 채옹이 회평석경을 쓴 이후로, 한나라의 팔분은 대체로 쇠퇴하였지.(中郎石經後, 八分蓋憔悴.)”라고 한 언급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두보가 언급하고 있는 당 이전의 서예가로는 먼저 한대의 陳遵과 후한의 張芝를 들 수 있다. 韋見素의 편지 글씨가 한나라의 서예가 陳遵을 능가한다고 칭찬하여 “편지 글씨는 한나라의 진준을 압도하네.(尺牘倒陳遵.)”라고 읊은 <위좌승에게 올리는 이십운(上韋左相二十韻)>(卷224-4)에서는 小楷書 편지 글씨에 뛰어난 한대의 서예가 진준이 예시되고 있으며, 초서에 뛰어났던 張彪의 서예에 대해 <열두 번째 항렬인 장표 산인에게 부치는 삼십 운(寄張十二山人彪三十韻)>(卷225-89)에서는 그의 서예가 한대의 대서예가인 張芝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극찬하며 “초서가 어찌나 그리 예스러운지, 시흥이 일면 신비함이 없지 않네. 조식처럼 선배들을 압

토된 기물로, 제왕이 사냥하고 잔치하는 등의 일을 칭송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獵碣’이라고도 한다. 大小二篆은 史籀의 大篆과 李斯의 小篆을 말하는데, 대전은 籀書라고도 하였다. 八分은 蔡邕이 창시했다는 八分書로, 隸書를 말한다. 宋의 《潘子眞詩話》(吳文治, 《宋詩話全編》, 江蘇古籍出版社, 1998, 南京, 第1冊 <潘淳詩話>, 667쪽) 참조.

도하고, 장지가 후대에 다시 태어난 듯하네.(草書何太古, 詩興不無神. 曹植休前輩, 張芝更後身.)”라고 읊고 있다.

또한 두보 시에 거론된 한대 이후의 서예가로는 東晉의 衛夫人 衛鑠과 王羲之, 顧野王, 鍾繇와 鍾會 부자가 있다. 거위를 좋아했던 왕희지가 산음의 도사에게 도교 경전인 <黃庭經>을 써주고 거위를 받아왔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을 왕희지에 비긴 <상공 방관의 못가 거위를 얻다(得房相池鵝)>(卷228-37)에서는 “봉황지 가에서 마땅히 머리 돌릴 터이니, 보답으로 받은 거위 새장에 넣어 왕희지를 따르겠네.(鳳凰池上應回首, 爲報籠隨王右軍.)”라고 읊어 그의 얽매임 없는 초탈한 행위에 대한 흠모의 정을 드러내었다. 비록 이 시구는 왕희지 서예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라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역대 최고의 書聖이라 일컬어지는 왕희지 인품에 대한 품평이면서 서성 왕희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왕희지가 어릴 적에 서예를 배웠던 衛鑠을 왕희지와 함께 거론한 <단청인, 조패 장군에게 드림(丹青引贈曹將軍霸)>(卷220-29)에서는 書畫에 모두 능했던 장군 曹霸의 서예 연원을 衛夫人과 왕희지에 두어 “그대도 처음에 위부인의 서예를 배웠으나, 다만 왕희지를 능가하지 못함이 아쉽네.(學書初學衛夫人, 但恨無過王右軍.)”라고 하였는데, 표면적으로만 단순히 조패 장군의 서예가 書聖 왕희지를 능가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두보의 이 말은 사실 조패의 서예 수준이 서성 왕희지 서예에 가장 근접하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서예의 최고 준칙으로 왕희지를 설정하면서 조패의 서예를 추켜세우고 있다.

이외에 당시 이미 三絶이라 칭송되었던 鄭虔의 서예를 찬양하면서 “신묘한 서예는 고야왕 혼자 최고라 할 수 없고, 서체의 변화는 중요와 중회 부자를 겸하였네.(神翰顧不一, 體變鐘兼兩.)”라고 한 <팔에서, 태주자사로 폄적되었던 고 저작랑 형양 사람 정공 건(八哀詩·故著作郎貶台州司戶滎陽鄭公虔)>(卷222-7)에서는 정건의 서예가 고야왕과 중요 중회 부자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교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의 시를 통해 두보는 당 이전 역대 서예가와 서체 중에는 石鼓文,

李斯의 篆書, 蔡邕의 八分[隸書], 한대의 陳遵과 張芝, 그리고 위진대의 鍾繇와 王羲之를 가장 빼어난 서예 계보를 이은 훌륭한 서예가와 작품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지와 왕희지를 역대 최고의 서예가로 꼽고 있다는 사실은 <전중감 楊炎이 장욱의 초서도를 보여준다(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卷221-26)에서 “알 수 없어라, 장지와 왕희지 이후로, 누가 그들과 짝할 수 있을지.(未知張王後, 誰并百代則.)”라고 읊은 것에서도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2. 당대 서예가와 서체를 논함

두보 시에서 당 이전 서예가와 서체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소략하나, 당대의 주요 서예가들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두보가 언급한 당대 서예가로는 먼저 초당의 4대 서예가 중 虞世南, 褚遂良, 薛稷 등을 들 수 있다.⁹⁾ 두보는 <열다섯 번째 향렬인 우사마에게 드리다(贈虞十五司馬)>(卷232-47)라는 시에서 虞世南 서예에 대해 자신이 그를 스승으로 사숙하였다고 하며 “멀리 비서감이었던 우세남을 스승으로 삼았었는데, 오늘 기쁘게도 그의 현손을 알게 되었네.(遠師虞秘監, 今喜識玄孫.)”라고 읊었는데, 대체로 자신의 서예 학습에 대해 우세남 서예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보의 서예는 일반적으로 우세남에게서 나왔다고 칭해졌다.

이와 더불어 褚遂良 서예의 빼어남을 강조한 시로는 “태부 가의 같은

9) 일반적으로 두보 이전 서예가로는 歐陽詢을 포함한 이상의 4명을 초당 사대 서예가라 칭하고, 당대 전체의 서예가를 거론할 때는 보통 薛稷 대신 顏真卿을 포함하여 당대 사대가라 칭한다. 두보의 시에서는 수많은 당대의 서예가가 거론되었지만 초당 사대 서예가 중 하나인 구양순과 당대 사대가인 顏真卿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특히 안진경에 대해 일인 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숙종 때 재상 房瑄의 과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견해 차이로 인한 섭섭함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朱關田의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江蘇教育出版社, 2014.6, 4版), 209쪽 참조.

재주는 일찍이 없었고, 저수량 공의 글씨는 천하에 으뜸이었는데.(賈傳才未有, 褚公書絕倫.)”라고 읊은 <담주를 출발하며(發潭州)>(卷233-49)를 들 수 있다. 두보는 또 타인이나 선조의 글씨를 찬상할 때 그 빼어남의 기준으로 저수량이나 薛稷의 서예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협주자사 劉伯華에게 보내는 사십 운(寄劉峽州伯華使君四十韻)>(卷230-7)에서 “[그대 조부의] 박학함은 노조린 왕발과 병칭되고, [우리 조부의] 글씨는 저수량과 설직의 명성과 함께 하네.(學并盧王敏, 書偕褚薛能.)”라고 劉伯華[조부]의 명민한 학식을 두보 [선조]의 서예 조예와 견주어 칭찬하면서 그 최고 기준으로 저수량과 설직 서예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설직에 대해서는 설직이 쓴 편액과 그의 그림을 본 감회를 <태자소보 설직의 글씨와 벽화를 보고(觀薛稷少保書畫壁)>(卷220-15)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하여, 그의 글씨에 대해 “그림은 사찰에 보관되어 있고, 글씨는 걸린 금빛 편액에 들어 있네. 이슬이 드리운 듯한 글씨체를 올려다보니, 무너지지도 이지러지지도 않았거니와, 힘찬 세 개의 큰 글자는, 교룡이 높이 서로 휘감고 있[는 듯하]네.(畫藏靑蓮界, 書入金榜懸. 仰看垂露姿, 不崩亦不騫. 鬱鬱三大字, 蛟龍岌相纏.)”라고 묘사하였다.

두보가 거론하고 있는 당대의 주요 서예가로는 위에서 예시한 초당 시대 서예가 외에는 먼저 장욱을 들 수 있다. 장욱 초서의 빼어남을 읊은 시로는 <전중감 양염이 장욱의 초서도를 보여주다(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卷221-26)를 가장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斯人已云亡,	이 사람 장욱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니,
草聖秘難得.	초서의 성인 장욱의 비급은 얻기 어렵네.
及茲煩見示,	지금 양염이 수고롭게도 보여주는데,
滿目一淒惻.	치량함과 비통함이 눈에 가득 차네.
悲風生微綃,	스산한 찬바람이 얇은 비단에 일고,
萬里起古色,	고아한 서법의 운치가 만 리까지 뻗치네.
鏘鏘鳴玉動,	쟁그랑 쟁그랑 옥 소리마냥 생동적이고,
落落孤松直.	낙락장송처럼 굳세고 힘 있는 필획이로다.

連山嶠其間,	연이어진 산이 글씨 사이에서 빙빙 감돌고,
溟漲與筆力.	넓고 넓은 큰 바다는 필력과 함께 하네.
有練實先書,	흰 비단 있으면 먼저 글씨 연습하여 채웠고,
臨池眞盡墨.	못가에서 연습하여 못물이 온통 검게 되었네.
俊拔爲之主,	준수하고 출중함은 서법의 주된 풍격이 되어,
暮年思轉極.	노년에 이르러 기예가 정점에 달하였네.
未知張王後,	알 수 없어라, 장지와 왕희지 이후로,
誰并百代則.	누가 그들과 짝할 수 있으려나.
嗚呼東吳精,	오호라! 장옥은 실로 동오의 영걸이어서,
逸氣感清識.	탈속의 기운 속에 고견을 느낄 수 있네.
楊公拂篋筥,	양공은 대나무 상자의 먼지를 털어내고,
舒卷忘寢食.	펼쳐다 말았다 감상하느라 침식을 잊었네.
念昔揮毫端,	옛날 글씨 쓰던 자태를 회상하노라니,
不獨觀酒德.	술 마시는 모습만 그리운 게 아니라네.

두보는 장옥이 살아있을 때도 일찍이 <술 마시는 여덟 신선의 노래(飲中八仙歌)>(卷216-25)에서 “장옥은 석 잔 술에 초서의 성인이라 전해지는 데, 왕공대인 앞에서 모자 벗고 정수리 드러내어, 붓 휘둘러 종이에 글씨 쓰면 구름과 연기 같네.(張旭三杯草聖傳, 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煙.)”라고 그에 대한 敬慕의 정을 읊기도 하였고, 장옥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공손대량의 제자가 추는 칼춤을 보며 쓰는 노래(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卷222-11)라는 시의 序文에서 “지난날 오지방 사람 장옥이 초서에 뛰어나 서첩 여러 편을 남겼는데, 일찍이 업현에서 공손대량이 서하검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로부터 초서가 크게 발전하여 거칠 데가 없고 생기가 있었다.(昔者吳人張旭善草書, 書帖數, 嘗於鄴縣見公孫大娘舞西河劍器, 自此草書長進, 豪蕩感激.)”라고 장옥 초서의 빼어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시인은 장옥 사후에 楊炎의 집에서 또 “구름연기 같이 붓을 휘둘러 쓴” 草聖 장옥의 초서 진필을 보게 되자, “쟁그랑 쟁그랑 옥 소리마냥 생동적이고, 낙락장송처럼 굳세고 힘 있는 필획”의 뛰어난 필적을 보면서 그의 활달하고도 자유로운 인품을 연상하였다. 이 시에서 두보는 東漢의 대

서예가 張芝와 東晉의 書聖 王羲之 이후로 장욱을 최고의 서예가로 추켜 세우며, 장욱이 글씨 쓰는 자태와 웅장한 필력을 함께 묘사하였다.

장욱 이외에 당대 유명 서예가를 거론한 두보의 시로는 두보 당시에 이미 三絶이라 칭송되었던 鄭虔의 書畫 성취를 찬양한 <팔에서, 태주자사로 폄적되었던 고 저작랑 형양 사람 정공 건(八哀詩·故著作郎貶台州司戶滎陽鄭公虔)>(卷222-7),¹⁰⁾ 두보 당시 이미 서예로 명망이 높았던 서예가 韓擇木과 蔡有鄰 및 이들과 동열에 들 수 있다는 생질 李潮의 서예를 언급한 <이조의 팔분소전 글씨 노래(李潮八分小篆歌)>,¹¹⁾ 한택목 채유린과 동열에 열거하여 顧誠奢의 서예를 찬양하고 있는 <고팔분 문학이 홍주와 길주로 가는 것을 전송하며(送顧八分文學適洪吉州)>(卷223-17)와¹²⁾ 단순히 顧誠奢의 서예를 찬양한 <취하여 부르는 노래, 공안의 안소부에게 드리며, 여덟 번째 향렬인 고계사에게 벽에 글씨를 써줄 것을 청하다(醉歌行, 贈公安顏十少府, 請顧八題壁)>(卷223-11)¹³⁾, 그리고 北海 李崱의 문장과 서예

- 10) “서체와 서화에 대한 조예는 광박하네. …… 신묘한 서예는 고야왕 혼자 최고라 할 수 없고, 서체의 변화는 중요와 중희 부자를 겸하였네.(蟲篆丹青廣. …… 神翰顧不一, 體變鐘兼兩.)”
- 11) “상서 한택목과 기조 채유린이, 개원 연간 이래로 팔분서에 아주 뛰어났는데, (尚書韓擇木, 騎曹蔡有鄰, 開元以來數八分,)” 일찍이 工部尚書를 지냈던 韓擇木은 당대의 대문학가인 韓愈의 작은 아버지로, 예서에 능하였다. 채옹의 18대손으로 濟陽 사람이고 벼슬이 右衛率府騎曹參軍(줄여서 騎曹라 함)까지 올랐던 蔡有鄰 역시 팔분서와 예서에 능하였는데, 처음에는 필체가 졸박하고 약했으나 당 玄宗 開元 天寶 연간에 마침내 정묘해졌다고 한다.
- 12) “중랑장 채옹이 회평석경을 쓴 이후로, 한나라의 팔분은 대체로 쇠퇴하였는데, 지금 고후 그대만이 홍로를 풀무질하여 쇠를 단련하듯 [일가를 이루어], 필력이 웅건하여 여지가 있네. 예전 개원 년간에, 한택목 채유린과 함께 서예로 유명하였네. 현종 황제께서는 이들의 글씨가 묘하다 여겨, 이로 인해 세 사람을 장안에 오게 하셨네. …… 고후께서는 한택목 채유린과 함께 있으나, 유독 혜안을 지녀 작은 글씨에 뛰어났었네. 날을 나누어 여러 왕들을 모시게 하니, 서예 용필의 비결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네.(中郎石經後, 八分蓋憔悴. 顧侯運爐錘, 筆力破餘地. 昔在開元中, 韓蔡同蟲鼠. 玄宗妙其書, 是以數子至. …… 顧于韓蔡內, 翦眼工小字. 分日示諸王, 鉤深法更秘.)”
- 13)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동오의 서예가인 문학 고계사를, …… 내 시와 고문학의 서예 그대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당에 올라 그대 위해 붓을 쓸어 글씨 쓰

를 동시에 찬송한 <팔애시, 비서소감 강하의 이공 옹에게 드림(八哀詩·贈秘書監江夏李公邕)>(卷222-5)¹⁴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서예가로 알려진 이들은 아니지만 두보 동시대의 명망가나 지인들의 서예를 언급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李白 서예의 묘함을 風雨에 비유한 <열두 번째 항렬 이백에게 부치는 이십 운(寄李十二白二十韻)>(卷225-90),¹⁵ 李璣 서예의 묘함을 언급한 <특진 여양왕에게 드리는 이십 운(贈特進汝陽王二十韻)>(卷224-8)¹⁶과 이진 사후에 그의 서예를 찬미한 <팔애시, 태자태사 여양군왕 이진에게 드림(八哀詩·贈太子太師汝陽郡王璣)>(卷222-4),¹⁷ 裴冕의 서예를 찬상한 <배시주에게 보냄(寄裴施州)>(卷221-17)과¹⁸ 鄭典設에게 서찰을 보내준 裴施州의 서예를 銀鉤와 矛戟 등의 비유어로 형용한 <정전설이 시주에서 돌아오다(鄭典設自施州歸)>(卷221-18),¹⁹ 從姪인 杜勤의 글씨를 칭찬한 <취하여 부르는 노래(醉歌行)>(卷216-18)²⁰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이 시들에서 묘사된 내용은 상당 부분 상대방의 서예를 의례적으로 칭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두보가 거론했던 이들 서예가와 유명인들 대다수는 송대 이후의 서론 저

계 하려네.(君不見東吳顧文學，…… 詩家筆勢君不嫌，詞翰升堂爲君掃。)"

- 14) “화려한 명성은 굳센 필력과 짝할 만하고, 얽매임 없는 소탈한 문장은 청려한 풍격 풍부하네. 풍류와 필적은 금석 위에 새겨지니, 비석에 조각된 글씨 산악 처럼 우뚝하네.(聲華當健筆，灑落富清制。風流散金石，追琢山岳銳。)”
- 15) “붓을 잡아 글씨 쓰면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시가 이루어지면 귀신도 울게 하네.(筆落驚風雨，詩成泣鬼神。)” 두보의 시집에서 이백을 직접 거론한 시는 15수 정도 되는데, 이백의 서예를 거론한 시는 <寄李十二白二十韻>(卷225-90)이 유일하다.
- 16) “붓이 나니 난새가 우뚝 서 있는 듯하고(筆飛鸞聳立)”
- 17) “휘호하여 쓴 글씨는 비단 자수인양 휘황하고(揮翰綺綉揚)”
- 18) “눈과 서리 같은 차가운 기운은 비단 소매를 회피하고, 글상자에 담긴 용과 뱀 같은 글씨는 은구처럼 파리 틀고 있네.(霜雪回光避錦袖，龍蛇動筆蟠銀鉤。)”
- 19) “전날 배시주께서 욱되게도 내려주신 은갈고리 같은 글씨는, 삼엄하게 널려 있는 갈기장을 보는 것 같았네。(他日辱銀鉤，森疏見矛戟。)”
- 20) “총각 시절에 초서는 또 귀신처럼 빨리 썼고，…… 붓의 진세는 홀로 많은 군사를 쓸어버리네。(總角草書又神速，…… 筆陣獨掃千人軍。)”

작에서 주요한 당대 서예가로 열거되고 있다.²¹⁾

두보는 당대의 다른 시인들보다 훨씬 많은 서예가 또는 서예 작품과 관련한 내용을 시에서 언급하고 있고, 전편에 걸쳐 서예 관련 내용을 읊고 있어 서예시라 칭할 수 있는 시도 여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서예시의 본격적인 시작은 두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3. 당대 서예의 기준 제시

두보는 당대의 서예가나 그들의 서예 작품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서술하면서 그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예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두보가 제시한 이러한 唐代 서예의 기준은 〈이조의 팔분소전 글씨 노래(李潮八分小篆歌)〉에 표현되었다.

.....
苦縣光和尚骨立,	고현의 노자비와 광화 연간의 번의비도
	빠대 선 것 숭상했으니,
書貴瘦硬方通神.	서체는 여위고 굳셈 귀히 여겨 바야흐로
	신묘함과 통하였네.
惜哉李蔡不復得,	안타까워라! 이사와 채옹 다시 얻을 수 없으나,
吾甥李潮下筆親	내 생질 이조 글 쓴 것이 그들과 가깝네.
尚書韓擇木,	상서 한택목과
騎曹蔡有鄰,	기조 채유린이 있어,

21) 宋代 朱長文의 《續書斷·品書論》 및 鄭杓의 《衍極》(潘運告 主編, 《元代書畫論》, 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11.6, 3版)과 豐坊의 《書訣》(潘運告 主編, 《明代書論》, 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06.11, 2版) 등을 들 수 있다.

22) 두보는 서예도구인 紙筆墨硯의 文房四友에도 관심을 가져 〈石硯詩〉(卷221-4)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 시는 서예 자체를 읊은 것은 아니지만 서예도구를 읊었다는 점에서 서예시의 범주에 넣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禹在鎬, 〈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韓中言語文化研究》 제37집, 韓國現代中國研究會, 2015.2), 166-168쪽 참조.

開元以來數八分,
 潮也奄有二子成三人.
 況潮小篆逼秦相,
 快劍長戟森相向.
 八分一字直百金,
 蛟龍盤拏肉屈強.
 吳郡張顛夸草書,
 草書非古空雄壯.
 豈如吾甥不流宕,
 丞相中郎丈人行.

개원 연간 이래로 팔분서 헤아리겠더니,
 이조와 두 서예가 함께하여 세 사람 되었네.
 하물며 이조의 소전은 진나라 승상에 매우 가까워,
 예리한 칼 긴 갈래창이 삼엄하게 마주한 듯하네.
 팔분서 한 자에 백금의 가치 있으니,
 교룡이 힘 있게 꿈틀거리듯 필획의 골육 굳세네.
 오군의 장욱이 초서 자랑하나,
 초서는 옛 것 아니어서 헛되이 웅장하기만 하네.
 자유분방 방탕하지 않은 내 생질과 어찌 같으리?
 승상 이사와 중랑 채옹이 이조의 스승이었는데,

노년에 四川·湖北·湖南 등으로 떠돌아다니던 두보는 뜻밖에 생질인 이조를 만났는데, 이조의 요청에 의해 두보는 이 시를 써서 그의 서예를 평가하였다. 위의 인용은 이 시의 후반부로 이조의 서예 특징 및 당시 書壇에 처한 그의 지위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두보는 소전에 능했던 이조의 서체를 추켜세워 이조가 이사와 채옹을 스승으로 삼아 이들의 서예에 가깝다고 하였고, 당대의 한택목·채유린과 함께 당시에 유명한 서예가의 반열에 들었다고 이조 팔분서의 뛰어남을 칭찬하고 있다. 張顛은 吳郡 사람인 張旭으로 술에 취하면 머리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썼으므로 천하에서는 그를 張顛이라 불렀는데, 두보는 초서의 대가인 장욱을 거론하면서, 장욱이 당시에 초서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조의 필체는 옛날 이사나 채옹처럼 단정한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며 이조 서예의 뛰어남을 더욱 강조하였다. 두보가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骨立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군살 없이 골격이나 뼈대가 매우 뛰어난 것을 말하며, 瘦硬은 필획이 여윈듯하면서도 강하고 곧으며 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예에서 필획이 군살 없이 곧썸을 숭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시에서 두보는 먼저 군살이 없이 골격이 뛰어나다는 의미의 骨立을 제시하고, 이어서 필획이 여윈듯하면서도 곧썸을 숭상한다는 의미의 瘦硬을 제시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

로 通神을 언급하였다.

두보는 서예 뿐만 아니라 말과 매를 읊은 시에서도 骨과 瘦를 숭상하여 이들 한자를 자주 사용하였다. 말을 묘사한 시 중에서는 <방병조의 호마(房兵曹胡馬)>(卷224-23)에서 “호마는 대원의 명마인데, 칼날의 모같이 마른 골격을 갖추었네.(胡馬大宛名, 鋒稜瘦骨成.)”라고 하거나, <천육표기가(天育驃騎歌)>(卷216-13)에서 “도도한 용마의 심태가 변화무쌍하고, 우뚝한 천골이 삼엄하게 펼쳐져 있네.(矯矯龍性合變化, 卓立天骨森開張.)”라고 한 것을 꼽을 수 있고, 매를 읊은 시로는 <송골매 그림(畫鵝行)>(卷217-29)에서 “고당에서 살아 있는 송골매를 보니, 강하고 빠른 모습 가을의 기골이 움직이네.(高堂見生鵝, 颯爽動秋骨.)”라고 묘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말과 매를 평한 시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평함에 있어서도 <서경의 두 아들을 노래함(徐卿二子歌)>(卷219-11)에서 “큰 아들은 올해 아홉 살인데 용모가 청수하고 맑으며, 맑은 가을 물 같은 정신에 옥 같은 풍골이라네.(大兒九齡色清澈, 秋水爲神玉爲骨.)”라거나, <위장군의 노래(魏將軍歌)>(卷223-4)에서 “위후 그대는 근골이 우뚝하고 정신이 왕성하며, 몸은 화산처럼 높이 솟아 가을 매를 보는 듯하네.(魏侯骨聳精爽緊, 華岳峯尖見秋隼.)”라고 하여, 말과 매와 사람에게 있어 빼어난 기개의 조건으로 여위면서도 강한 骨力을 크게 칭찬하였다.

아울러 두보는 시에서 시서화와 관련한 예술을 이야기할 때는 ‘神’이란 어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²³⁾ 두보가 강조한 骨力과 瘦硬은 단지 예술 성취상의 도구였고, 이를 통해 도달하고자 한 예술의 최고 경지는 바로 신묘함과 통한다는 通神이었다. 두보가 이 시에서 제기한 尚骨과 “서체는 여윈듯하면서도 굳셈을 귀히 여겨야 바야흐로 신묘함과 통한다”라는 관점은 顏眞卿의 서체가 유행하기 전에 글씨를 평하는 표준이 되었다.²⁴⁾

23) 張學鵬, 《杜甫論書詩研究》(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5), 23쪽. 두보의 시에서 ‘神’ 자를 사용하고 있는 시가 50여 수에 이른다.

24) 范文瀾, 《中國通史簡編》(全2冊, 中華現代學術名著叢書, 商務印書館, 2010.12), 楊克炎 選注, 《書法詠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10쪽에서 轉引.

그러나 두보의 서론은 종종 흥이 일어나는 대로 평하는 즉흥적인 면이 있어 일관된 표준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장옥 초서에 대한 견해이다. 두보는 장옥 생전에는 <술 마시는 여덟 신선의 노래(飲中八仙歌)>(卷216-25)에서 “장옥은 석 잔 술에 초서의 성인이라 전해지는데, 왕공대인 앞에서 모자 벗고 정수리 드러내어, 붓 휘둘러 종이에 글씨 쓰면 구름과 연기 같네.(張旭三杯草聖傳, 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煙.)”라고 칭찬하였고, 장옥 사후에도 <전중감 양염이 장옥의 초서도를 보여주다(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卷221-26)와 <공손대량의 제자가 검기행 춤을 추는 것을 보며(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卷222-11)라는 시의 序文에서 장옥 초서의 빼어남을 지적하였으나, 이 시를 지은 지 몇 년 후에 창작한 <이조의 팔분소전 글씨 노래(李潮八分小篆歌)>(卷222-22)에서는 조카인 이조의 전서를 칭찬하기 위해 장옥 초서를 폄하하면서 “오군의 장옥이 초서 자랑하나, 초서는 옛 것 아니어서 헛되이 웅장하기만 하네.(吳郡張顛夸草書, 草書非古空雄壯.)”라고 하여,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는 투로 언급하였다.²⁵⁾ 같은 장옥 초서에 대한 평인데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그 평가의 온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Ⅲ. 두보 서론과 서예에 대한 후대의 평가

두보 스스로 왕희지를 자신에 비기거나,²⁶⁾ 虞世南의 서예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하거나,²⁷⁾ 때때로 褚遂良을 비롯한 당대의 여러 서예대가들의 작품을 폄평한 것을 보면,²⁸⁾ 두보 스스로 자신의 서예를 자부하였다고 볼

25) 이 구절은 조카 이조가 쓴 ‘팔분소전’을 당시 최고의 초서 대가인 장옥의 초서보다 높이 평가하고 싶은 두보의 의도가 담겼을 것이다. 따라서 장옥의 초서를 하찮게 여긴 것이라기보다는 옛 것이 아닌 두보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초서’ 자체에 대한 회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6) <得房相池鵝>(卷228-37) “鳳凰池上應回首, 爲報籠隨王右軍.”

27) <贈虞十五司馬>(卷232-47) “遠師虞秘監.”

소식의 이러한 비평과 관련하여 명대의 楊慎은 《升庵論書》에서 “방손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보는 서예를 논하면서 여위고 굳셈을 귀하게 여겼고, 말 그림을 논하면서 살이 많은 것을 비루하게 여겼는데, 이는 천부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말한 것일 뿐이며 통론이 아니다. 대체로 글자가 살지고 여윈 것은 각각 그 마땅함이 있어서, 반드시 여윈 것은 모두 좋고 살진 것은 모두 나쁘다고 할 수 없으니, 비유하자면 미인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소동파는 “짧고 길고 살지고 여윈 것이 각각 자태가 있으니, 양귀비와 조비연 중에 누구를 감히 싫어하리오.”라고 하고, 또 “서생의 늙은 눈엔 보이는 게 희미하여, 주방이 그린 그림의 풍만한 여인의 자태만 느껴지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특별히 여인의 자태를 평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서예를 논하여도 좋을 것이다.(方遜志云, 杜子美論書則貴瘦硬, 論畫馬則鄙多肉, 此自其天資所好而言耳, 非通論也. 大抵字之肥瘦各有宜, 未必瘦者皆好而肥者皆非也, 譬之美人然. 東坡云, 短長肥瘠各有態, 玉環飛燕誰敢憎. 又曰, 書生老眼省見稀, 畫圖但覺周昉肥. 此言非特爲女色評, 持以論書可也.)”라고 하여,³³⁾ 두보 서론에 대한 소식의 견해를 정리하여 두보의 논지가 개인의 기호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清代의 傅山은 《傅山論書》에서 두보가 제기한 ‘瘦硬論’은 篆書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당대 서예의 흐름을 고찰해볼 때 필연적인

있을 때마다 초서로 두보의 시를 직접 필사하였으며, 특히 〈書自草李潮八分歌後〉에서는 초서 필사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두보 서예에 대한 직접적인 여타의 언급을 한 적은 없다. 황정건의 서예시와 서론에 대해서는 禹在鎬,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中國語文學》 第69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5.8) 참조. 소식이나 황정건이 만약 두보의 친필 서예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최소한 간단한 평이라도 하였을 것이나, 현존하는 소식과 황정건의 문집에 두보의 친필을 직접 보았다는 어떠한 언급도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소식은 두보가 제시한 서예의 기준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덧붙였고, 황정건은 기회가 될 때마다 두보의 시를 초서로 필사하였으니, 두보의 서예시와 서론이 송대의 이 두 거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

33) 楊慎, 《升庵論書》(潘運告 主編, 《明代書論》, 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06.11, 2版), 90쪽. 이 구에 인용된 소식의 두 번째 시는 《蘇軾詩集》 卷18 〈作書寄王晉卿, 忽憶前年寒食北城之遊, 走筆爲此詩〉이다.

과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당나라 초기 서예는 진송의 풍격을 얻었기 때문에 굳세고 건장함을 서로 숭상하였고, 저수량과 설직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극히 여위고 굳세었다. 현종 개원 천보 이후에는 살찌고 풍만한 것으로 변하였는데, 소영지 무리에 이르러서는 거의 무겁고 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보는 ‘글씨는 여위고 굳셈을 귀히 여겨야 바야흐로 신묘함과 통한다.’고 하였으니, 그 말은 전서를 위해 펼쳐낸 것이나, 또한 그 당시의 풍조에 격발된 점이 있는 듯하다.(唐初字書得晉宋之風, 故以勁健相尚, 至褚薛則尤極瘦硬也. 開元天寶以後變爲肥厚, 至蘇靈芝輩幾於重濁. 故老杜云, ‘書貴瘦硬方有神’, 其言爲篆字而發, 亦似有激於當時也.)”고 당대 서예의 사적인 변화과정에 있어서 두보의 서론은 제기될만한 필연적 흐름이었다고 옹호하였다.³⁴⁾

이밖에 두보의 서예와 서론에 대해 평을 하고 있는 송대의 평자로는 米芾와 趙明誠을 더 들 수 있다. 이 둘은 오히려 두보가 서예에 대한 안목과 조예가 부족하거나 너무 주관에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米芾은 《海岳名言》에서 두보가 <태자소보 설직의 글씨와 벽화를 보고(觀薛稷少保書畫壁)>(卷220-15)에서 설직의 글씨를 높이 추켜세워 “그림은 사찰에 보관되어 있고, 글씨는 걸린 금빛 편액에 들어 있네. 이슬이 드리운 듯한 글씨체를 올려다보니, 무너지지도 이지러지지도 않았거니와, 힘찬 세 개의 큰 글자는, 교룡이 높이 서로 휘감고 있[는 듯하]네.(畫藏靑蓮界, 書入金榜懸. 仰看垂露姿, 不崩亦不騫. 鬱鬱三大字, 蛟龍岌相纏.)”라고 한 점에 대해 “薛稷이 慧普寺라는 글씨를 썼는데, 두보는 그 글씨가 ‘교룡이 높이 서로 휘감고 있[는 듯하]다.’고 인식하였다. 지금 그 글씨의 탁본을 보니, 이는 묘지석에 조각된 통통한 동자가 뜨거운 찰빵을 손에 잡고 있는 형세이니, 진실로 두보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자이다.(薛稷書慧普寺, 老杜以爲‘蛟龍岌相纏.’今見其本, 乃如奈重兒握蒸餅勢, 信老杜不能書也.)”라고 하여³⁵⁾ 두보가 글씨를 평하는 식견에 의혹을

34) 傅山, 《傅山論書》(潘運告 主編, 桂第子 譯註, 《清前期書論》, 湖南美術出版社, 2005.1, 2刷), 90쪽.

제기하면서 두보의 서예 작품을 보는 안목이 변변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해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송의 趙明誠 역시 <이조의 팔분소전 글씨 노래(李潮八分小篆歌)>에서 당시의 유명 서예가인 한택목·채유린과 함께 셋을 동열에 두어 이조 팔분서의 뛰어난 점을 칭찬하며 이조 서예를 크게 추켜세웠던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조명성은 <金石錄·唐李潮彌勒像碑>에서 “이조의 글씨는 처음에는 극히 적어서 오직 이 비석과 <팽원요묘지> 뿐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얻었다. 그 필법 또한 빼어난 것이 아니어서 한택목이나 채유린과 비교할 수 없다.(潮書初絕少, 惟此碑與彭元曜墓志爾, 余得之. 其筆法亦不絕工, 非韓蔡比也.)”고 이조의 글씨를 폄하하였고,³⁵⁾ 계속하여 “이조의 글씨가 처음 당시에는 중시되지 못했는데 유독 두보의 시에서만 성대하게 칭찬하고 있다.(書初不見重於時, 獨杜詩盛稱之)”고 덧붙임으로써, 이조가 두보의 과도한 칭찬을 받은 것은, 이조의 글씨가 크게 뛰어나거나 두보의 서예에 대한 안목이 빼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두보의 생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하고 있다.

두보의 서예와 서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이상과 같은 평가 이외에, 두보 서예의 뛰어난 점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먼저 元의 鄭杓은 <衍極>에서 “이백은 법이 없는 법을 체득하였고, 두보는 뜻으로 글씨를 썼다.(太白得無法之法, 子美以意行之.)”라고 하면서, 이 문장의 주석에 “자미의 성은 두, 이름은 보이고, 관직이 검교공부원외랑에 이르렀으며, 해서, 예서, 행서, 초서에 뛰어났다.(子美姓杜名甫,

35) 米芾, <海岳名言>(潘運告 主編, 水采田 譯註, <宋代書論>, 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06.11, 5版), 185쪽. <海岳名言> 같은 책 174-175쪽에는 “老杜作薛稷慧普寺詩云, ‘鬱鬱三大字, 蛟龍岌相纏.’ 今有石本得視之, 乃是勾勒倒收筆鋒, 筆筆如蒸餅. 普字如人握兩拳, 伸臂而立, 醜怪難狀. 由是論之, 古無眞大字, 明矣.”라고 하여 설직의 대자를 긍정한 두보의 평이 명실상부하지 않는 듯하다는 언급도 있다.

36)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 12), 152쪽 참조.

官至檢校工部員外郎, 善楷隸行草.)”라고 부기하였다.³⁷⁾ 아마도 원대에 이 백과 두보의 친필이 전해졌고, 두보의 친필 서예를 감상했던 작가 鄭杓은 두보의 서예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초까지는 두보의 친필 서예 작품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明末의 錢謙益이 두보의 시에 주를 달면서, 內閣에서 두보의 〈贈衛八處士〉(卷216-19) 시의 친필 목적을 보며 “자체가 매우 기이하고 훌륭하다(字甚怪偉)”고 이야기하였다는 명초 胡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³⁸⁾ 이 언급을 통해 명대에 두보 친필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胡儼이 보았다는 두보 친필 목적의 진위 여부는 현재의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보 친필 목적에 대한 언급들을 고려해보면 두보의 서예는 괴이하고도 거창하였던 듯하며, 이를 통해 두보 역시 전업 서예가에 버금가는 서예 수준과 풍격을 지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明代 陶宗儀의 《書史會要》에서도 “(두보는) 해서 예서 행서 초서에 뛰어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於楷隸行草無不工者.)”고 하였는데,³⁹⁾ 이는 元代 鄭杓의 논평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한 인상을 주며, 저자가 두보의 친필을 직접 보고 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명대 豐坊은 《書訣》에서 남북조의 晋代부터 명대까지 필법에 뛰어난 자로 모두 83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唐代의 명서예가 17인을 열거하면서 歐陽詢, 虞世南, 褚遂良, 顏真卿, 柳公權과 함께 두보를 포함시키므로써, 두보의 서예 수준을 이들 저명 서예가와 동열에 두었다.⁴⁰⁾ 이상의 여러 평가들의 평가를 통해 볼 때, 다른 유명 서예가들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소략한 편이긴 하지만, 두보의 서예와 서론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37) 鄭杓, 《衍極·古學篇》(潘運告 主編, 《元代書畫論》, 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11.6, 3版), 193쪽.

38) 錢謙益 箋注, 《錢注杜詩》(全2册, 上海古籍出版社, 1979.10) 卷1, 16-17쪽.

39) 陶宗儀, 《書史會要》(徐娟 主編, 中國歷代書畫藝術論著叢編1(全60册),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1997), 卷5, 165쪽.

40) 豐坊, 《書訣》(潘運告 主編 譯註, 《明代書論》, 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06.11, 2版), 42쪽.

평가가 공존하면서 송대부터 청대까지 꾸준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詩聖, 律聖, 詩史라 칭해지는 두보는 당대뿐만 아니라 중국문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보가 여타의 다른 시인들과 달리 서예 관련 내용을 시에서 특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서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두보의 시에 초점을 맞추어 두보의 서예와 서예관, 그리고 두보의 서예와 서론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분석해보았다. 당대의 많은 시인들 중에서 특별히 두보의 서예와 서예관을 분석해보고자 한 이유는 첫째, 두보가 어릴 때부터 글씨 쓰기를 좋아하여 9세 때 이미 큰 글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으므로 이때부터 서예에 대한 관심도 남다른 바가 있었을 것이고, 둘째, 두보의 시에서 서예 관련 내용을 다룬 시가 거의 백여 수에 이를 정도로 많고, 한 수 전체가 서예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서예시라 분류할 수 있는 시만 4수나 되며, 셋째, 두보 서예와 서론을 평하고 있는 역대 평자들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두보의 서예 수준과 풍격뿐 아니라 다른 서예가들의 서예에 대한 품평 안목 역시 상당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두보의 시를 분석해볼 때, 두보는 당 이전 역대 서예가와 서체 중에는 石鼓文, 李斯의 篆書, 蔡邕의 八分[隸書], 한대 陳遵의 楷書와 張芝의 草書, 그리고 위진대의 鍾繇와 王羲之를 가장 빼어난 서예 계보를 이은 훌륭한 서예가와 작품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장지와 왕희지를 역대 최고의 서예가로 꼽았다. 당 이전 서예가와 서체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소략하나, 당대의 주요 서예가들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두보가 열거한 당대 주요 서예가로는 먼저 초당의 4대 서예가 중 虞世南, 褚遂良, 薛稷 등을 들 수 있고, 이밖에 초당 사대 서예가 외에 書聖 王羲之 이후 최고 서예가로 추켜세운 張旭, 두보 당시에 이미

三絶이라 칭송되었던 鄭虔, 서예로 명망이 높았던 서예가 韓擇木과 蔡有鄰과 顧誠奢, 그리고 北海 李嶽을 들 수 있다. 이밖에 李白 등 서예가로 크게 알려진 이들은 아니지만 두보 동시대의 명망가나 지인들의 서예를 언급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두보가 거론했던 이들 서예가와 유명인들 대다수는 송대 이후 서론 저작에서 주요한 당대 서예가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중국 서예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두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보는 당대의 서예가나 그들의 서예 작품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서술하면서 그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예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제시하였다. 두보는 먼저 군살이 없이 골격이 뛰어나다는 의미의 骨立을 제시하고, 이어서 필획이 여윈듯하면서도 굳셈을 숭상한다는 의미의 瘦硬을 제시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로 通神을 언급하였다. 두보가 이 시에서 제기한 瘦硬과 通神이라는 관점은 顏真卿의 서체가 유행하기 전에 글씨를 평하는 표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두보의 서예나 서론에 대해 평하고 있는 송 이후의 역대 논서 관련 저작을 중심으로 두보의 서예와 그의 서론에 대한 후대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송대의 蘇軾과 黃庭堅, 朱長文, 米芾, 趙明誠, 元代 鄭杓, 명대 楊慎과 陶宗儀와 豐坊, 明末清初의 錢謙益, 청대의 傅山 등은 唐代의 저명한 서예가를 열거하면서 두보를 당대의 대표적 서예가들과 함께 동열에 두어 평가거나, 때로는 두보가 제시한 당대 서예의 기준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두보의 시를 통해 살펴본 두보의 서예관은 전문 서예가의 이론이 아니어서 체계적이거나 종합적이라 할 수 없고 상당히 지엽적이고 산발적이며 주관적인 면도 없진 않지만, 두보가 자신의 많은 시에서 서예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두보와 동시대에 생존하였던 당대 서예가 중에 가장 유명한 顏真卿과 懷素 서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도 한 가지 의아한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Cai Xianliang.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on Tang Dynasty*. Nanjing yishu xueyuan, Master's thesis, 2004.4.
2. *Complete Library in Four Branches of Literature, the Electronic Version of Siku Quanshu*(Wenyuange Edition) 3.0edition. Shanghai: Shanghai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7.
3. Fan Yungao. *Theory of calligraphy in Song Dynasty*. Hunan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6.11.
4. Fan Yungao. *Theory of calligraphy and Paintings in Yuan Dynasty*. Hunan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11.6.
5. Fan Yungao. *Theory of calligraphy in Ming Dynasty*. Hunan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6.11.
6. Fan Yungao. *Theory of calligraphy in Early Qing Dynasty*. Hunan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5.1.
7. Fang Ailong. "Detailed discussions of Du fu's poem Lichaobafenxiao zhuange and Comparison with Su shi's poems". *Journal of Zhejiang College of Broadcasting and Television* No.5, (1995).
8. Han Chengwu & Zhang Zhimin. *Complete Translation of Du fu's poems*. Hebei Peoples Publishing House, 1997.10.
9. Kim Kwang-uk. "A Study on Calligraphic Critique poems of Three Kingdoms and Koryo Dynasty". *Essays on Calligraphy* Vol.6, Calligraphic Society of Daegu, Zhongmun Press, 2001.
10. Kim Kwang-uk. *A Study on Korean Calligraphic Critique poems*. Keimyung University Press, 2006.10.
11. Kong Fanli. *Sushishiji: Complete poetry of Su shi*(all 8 volumes) 1 edition. Zhongguo gudianwenxue jibencongshu. Beijing: Chunghwa

- book co, 1989.3.
12. Lee Yeongju et al.. *An Annotated Translation of Du fu's early poems*. SolBook, 1999.1.
 13. Lee Yeongju et al.. *An Annotated Translation of Du fu's poems Composed while The period of Zhid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2001.
 14. Lee Yeongju et al.. *An Annotated Translation of Du fu's poems Composed while The Official perio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8.
 15. Lee Yeongju et al.. *Complete Translation of Du fu's Principle poems*. MYUNG MUNDANG, 2006.6.
 16. Lee Yeongju et al.. *An Annotated Translation of Du fu's poems Composed while Travelling Tonggu and Qinzhou Reg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8.
 17. Lee Yeongju et al.. *An Annotated Translation of Du fu's poems Composed while Living in Chengdu*.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8.
 18. Lee Yeongju et al.. *An Annotated Translation of Du fu's poems Composed while Living in Zi-zhou, Lang-zhou*.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
 19. Qian Qianyi. *Qian zhu Du Shi*(all 2 volumes). Shanghai Classics Publishing House, 1979.
 20. Qiu zhaoao. *Dushi xiangzhu*(all 3 volumes). Taipei: Hanjing wenhua shiye youxian gongsi, Minguo73[1984].
 21. *QuanTangshi: Complete poetry of the Tang*(all 2 volumes), Taipei: Taiwan Hongye shuju, Minguo71[1982].
 22. Sun min. "Calligraphy Aesthetic View in the poetry of Sushi - Interpretation of Su shi's Three poems on Calligraphy". *Journal*

- of Leshan Teachers College* Vol.19 No.6, (Jun.2004).
23.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Tang Dynasty".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43, (2008.12).
 24. Woo Jae-Ho. "A Study on The Four Friends of the Study in Poetry of Tang Dynasty", *The Journal of Study on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and China* Vol.37, (2015.2).
 25.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Huang Ting-jia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9, (2015.8).
 26. Woo Jae-Ho.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and Calligraphy Aesthetic View of Su Shi".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71, (2016.4).
 27. Wu Wenzhi. *The whole series of Song Poetry*(all 10 volumes). Nanjing: Jiangsu Ancient Books Press, 1998.
 28. Xu Juan. *All Collection of Chinese Paintings and Calligraphic art Articles of all time*(all 60 volumes). Beijing: Encyclopedia of China Publishing House, 1997.
 29. Yang Keyan. *Shufayonglun*. Shenyang: Liaoning Fine arts Publishing House, 1993.
 30. Zhang Xuepeng. *A Study on Poems of Appraising Calligraphy of Du Fu*. Hebei University, A Dissertation for the Master Degree of Arts. 2010 May.
 31. Zhou Benchun. "A Comparison of Du fu and Su shi's poetry that treats Calligraphy". *Journal of Huaiyin Normal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No.2, (Jul.1988)

32. Zhu Guantian,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 Volume of Sui, Tang and Five Dynasties Period*. Jiangsu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14.6.

< 참고문헌 >

1.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
2.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3.0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 潘運告 主編, 《宋代書論》, 5版, 湖南美術出版社, 2006.11.
4. 潘運告 主編, 《元代書畫論》, 3版, 湖南美術出版社, 2011.6.
5. 潘運告 主編, 《明代書論》, 2版, 湖南美術出版社, 2006.11.
6. 潘運告 主編, 《清前期書論》, 2版, 湖南美術出版社, 2005.1
7. 方愛龍, 〈杜甫李潮八分小篆歌闡論兼與蘇軾詩比較〉, 《浙江廣播電視高等專科學校學報》 第5期, 1995.
8. 韓成武·張志民, 《杜甫詩全譯》, 河北人民出版社, 1997.10.
9. 金光郁, 〈三國과 高麗의 論書詩 考察〉, 《書學論集》 第6輯, 2001.
10. 金光郁, 《韓國 書藝詩 研究》,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10.
11.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全8冊), 3版, 北京, 中華書局, 1992.
12. 이영주 등 역해, 《두보초기시역해》, 솔, 1999.1.
13. 이영주 등 역해, 《두보지덕연간시역해》,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14. 이영주 등 역해, 《두보위관시기시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8.
15. 이영주 등 역해, 《완역 두보율시》, 명문당, 2006.6.
16. 이영주 등 역해, 《두보진주동곡시기시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10.
17. 이영주 등 역해, 《두보성도시기시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12.
18. 이영주 등 역해, 《두보재주낭주시기시역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12.

19. 錢謙益 箋注, 《錢注杜詩》(全2册), 上海古籍出版社, 1979.10.
20. 仇兆鰲, 《杜詩詳註》(全3册), 臺灣,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3年.
21. 《全唐詩》(上·下), 再版,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22. 孫民, 〈蘇軾詩中的書道觀—解讀蘇軾三首論書詩〉, 《樂山師範學院學報》
19卷 6期, 2004.6.
23.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 《中語中文學》 第43輯, 2008.12.
24. 禹在鎬, 〈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 《韓中言語文化研究》 제
37집, 2015.2.
25. 禹在鎬, 〈黃庭堅 書藝詩 研究〉, 《中國語文學》 第69輯, 2015.8.
26. 禹在鎬,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中國語文學》 第71輯,
2016.4.
27. 吳文治, 《宋詩話全編》(全十册),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28. 徐娟 主編, 《中國歷代書畫藝術論著叢編1》(全60册), 北京, 中國大百
科全書出版社, 1997.
29.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30. 張學鵬, 《杜甫論書詩研究》,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5.
31. 周本淳, 〈杜甫與蘇軾論書詩之比較〉, 《淮陰師專學報》 第2期, 1988.
32. 朱關田,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 4版, 江蘇教育出版社, 2014.6.

< Abstract >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Du Fu(杜甫)'s 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and Evaluation of future generations. Through Du Fu's poems on calligraphy, it can be seen that Du Fu liked handwriting since childhood and already made some achievements in big letters in childhood. Besides, it is also seen that he had a high proficiency in calligraphy and a lot of critical insights into the calligraphic works of past and contemporary

calligraphers.

Among Du Fu's poems, almost as many as 100 poems contained at least one line about the content of a poem on calligraphy, and four poems were filled with contents about calligraphy. So it can be said that Chinese poems on calligraphy began with Du Fu. In addition, his poems on calligraphy make it clear that the introduction presented by him became the standards for the calligraphy theory in the Tang Dynasty. Du Fu's viewpoint like this became the standard for evaluating a style of handwriting in the Tang Dynasty before Yan Zhenqing(顏真卿)'s style of handwriting became popular. Also, this paper introduced the evaluations of Du Fu's calligraphy after the Song Dynasty period.

Key Words : 杜甫(Du fu), 書藝(calligraphy), 書藝觀(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書藝詩(Poems on calligraphy), 書論(Theory of calligraphy), 書藝家(Calligrapher)